

2021 새해 새 설계

김종식 목포시장

3대 미래전략산업 가속화... 문화도시 조성 속도



"2021년 목포시정은 호시우행(虎視牛行·호랑이처럼 보면서 소처럼 걸어간다)의 자세로 안팎의 상황을 냉철하게 바라보면서 계획을 뚝심있게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목포의 변화는 우리의 의지와 협력에 달렸다"며 "희망찬 미래를 향한 물줄기들이 큰 바다를 이루도록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가자"고 새해 신년사를 통해 당부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새 설계를 지난해 꾸준히 추진해온 3대 미래전략인 '신재생에너지 육성', '수산식품 부가가치 제고', '관광 완성'에 마침표를 찍는 해로 삼고 침체된 지역 경제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임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2021년 해상풍력과 친환경선박 등 양대 산업에 기반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속도감을 높일 계획이다.

신안에 조성되는 8.2GW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단지에 필요한 기자재와 부품 생산기업을 신항 배후부지에 유치할 예정이다. 또 대양산단을 해상풍력융복합산업화 플랫폼으로 조성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선박산업은 목포 남항을 중심으로 이뤄진

신재생에너지·수산·관광 완성

침체된 지역경제 새 전환점 마련

'문화도시' 최종 지정 역량 집중

다. 이곳에는 전기 추진 선박 및 이동형 전원 공급 시스템 개발, 친환경 선박 혼합연료 기술개발 실증, 전문인력 교육·연구기관 조성 등이 추진된다.

목포시는 사업이 완료되면 목포 남항은 기술개발과 실증, 전문인력 양성 등 친환경선박 인프라가 집약된 세계적인 클러스터로 대변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시장은 "친환경 선박산업은 지역의 침체된 조선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할 것"이라며 "친환경선박 혁신기술개발사업이 국책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취임 이후 또 하나의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수산식품산업의 부가가치 향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세계 수산식품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수산

2021년 주요 사업

- ▲신재생에너지·친환경선박 산업 육성
-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 ▲관광 거점도시 조성
- ▲문화도시 선정
-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대 개조
- ▲2028 세계 섬엑스포 유치
-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식품수출단지의 착공과 함께 지역의 간판 상품으로 어묵과 김이 육성된다. 어묵의 세계화 전략을 수립해 생산공장을 구축하고, 브랜드마케팅 등 목포어묵의 산업기반이 확대된다. 또 전국 생산량 1위인 전남의 마른 김 가공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차별화된 기술과 제품개발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주춤했던 관광사업은 2024년까지 1000억원이 투입되는 관광거점도시 사업은 130억원을 투입해 대반동 일대 야간경관 특화사업, 목포 맛의 거점 미식관광 플랫폼 구축,

스마트 관광안내시스템 구축, 평화광장 바다분수 해상무대 조성으로 목포 관광자원을 확충하는 등 내실을 다지고 미래를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또, 평화광장에서 목포해양대까지 '해변맛길 30리' 조성, 고하도 해안데크 2차분 연장으로 비대면 도보여행지를 강화하고 삼학도에는 컨벤션 센터와 가족형 숙박시설을 조성해 체류형 관광의 거점으로 변모시키는 한편, 관광 수익 증대도 꾀한다는 방침이다.

목포시는 최근 5년간 200억원이 투입되는 문화도시의 1차 관문인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됐다. 이를 위해 문화도시 연구개발(R&D) 사업, 문화기획자 및 문화큐레이터 양성사업 등을 추진해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오는 10월 전국 최초의 문학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목포의 미래를 좌우할 주요 현안인 ▲목포역 철도시설 재배치 및 대 개조 ▲2028 세계 섬 엑스포 유치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등에도 공감대를 확대하고 역량을 결집한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목포=박종배 기자 pjb@kwangju.co.kr

"쉬면서 즐겨요" 신안 천사대교 명품 쉼터

신안군·익산국토청, 천사복합센터 조성 업무 협약

전남 서남권의 랜드마크인 천사대교 주변에 보고, 쉬고, 맛보고, 즐길 수 있는 명품 쉼터가 조성된다.

4일 신안군에 따르면 익산국토관리청은 신안 압테 오도선착장 일원에 천사대교관리사무소와 쉼

터 길역 쉼터, 공원을 갖춘 복합센터를 조성한다. 익산국토청은 천사대교를 안전하게 관리할 최첨단 장비는 물론 다양한 편의시설(카페, 전시 및 홍보실, 전망대) 등을 갖춘 관리사무소를 짓는다. 신안군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다양한 볼거리

를 제공하는 천사공원과 지역 특산물·대표 먹거리 등을 판매하는 섬길역 쉼터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30일 익산국토청과 신안군은 천사복합센터(가칭) 조성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업무협약에서 천사복합센터가 향후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되도록 공동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지속해서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천사복합센터와 천사공원 등에 총 사업비 290억원을 투입해 내년 말 완공 예정이다. 센터가 건립되면 천사대교의 안전 강화는 물론 방문객들이 보

고, 즐기고, 머물 수 있는 새로운 명소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천사대교는 서남권의 랜드마크로 자리를 잡았고 섬과 섬을 연결해주는 대교를 넘어 중부권의 '퍼플바다정원', '1004섬 뮤지엄 파크' '무한의 다리' 등이 새로운 언택트 관광 핫플레이스로 뜨고 있다"며 "천사대교가 세계적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익산국토청과 협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공공주도' 영광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본격 가동

어업인 단체·수협·군의회·전남도·영광군·전문가 참여

민관 상생의 공공주도형 모델인 영광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민관 협의체가 본격 가동됐다.

4일 영광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영광군 공공주도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출범식을 했다. 협의회는 공공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사업 분야 민관 상생을 도출하기 위해 어업인단체·영광군수협, 영광군의회, 전남도·영광군, 대학·연구기관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16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주요 활동 분야는 공공주도형 해상풍력 적합입지 발굴·선정 협의, 수산업 공존형 해상풍력단지

개발 공동 모색, 해상풍력단지 개발과 연계한 어업인 이익 공유 모델 개발 등이다.

이 사업은 영광군이 지난해 10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됐다. 국비 35억원을 투입해 해상풍력 적합입지의 풍황자원 측정, 해양환경 조사, 주민 수용성 확보를 통해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발전단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통해 해상풍력발전사업과 수산업의 공존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영광=이종윤 기자 jylee@kwangju.co.kr



민관 상생의 공공주도형 모델인 영광 해상풍력발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영광군 공공주도 해상풍력 민관협의회'가 최근 출범했다. <영광군 제공>

무안군, 낙지특화거리 조성 버스터미널 일원 10억 투입

낙지 주산지인 무안에 낙지특화거리가 조성된다.

4일 무안군에 따르면 낙지특화거리 조성을 위해 오는 2월 말까지 도비와 군비 등 10억원을 투입해 무안을 버스터미널 일원 거리에 벽화를 그리고, 간판과 수족관 등의 디자인을 교체한다.

또 무안을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노후된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보도블럭과 하수구 정비를 실시해 쾌적한 거리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낙지거리 방문객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공사 기간 중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무안=임동현 기자 idh@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